

# 중국 전통지식인과 정치사회권력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閔 貴 植

- |                            |                            |
|----------------------------|----------------------------|
| I. 중국 전통지식인의 개념과 특징        | III. 전통지식인의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
| A. 사(士)·사대부(士大夫)·지식인(知識分子) | A. 통일왕조 이전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
| B. 중국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역할      | B. 통일왕조-과거제 이전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
| II.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권력          | C. 과거제 이후의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
| A. 유가의 사회문화권력              | D. 아편전쟁 이후 지식인의 변신         |
| B. 정통(政統)에 맞선 도통(道統)의 정신   | IV. 권력에 대한 전통지식인 행동 평가     |
| C.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 변천      |                            |

## 한글초록

중국 전통지식인은 인문주의를 보존하고, 백성을 인문도덕으로 교화하며, 유교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정치를 통해 ‘도’를 구현한다는 신념에 따라 정치에 적극 참여했다. 그래서 ‘학문이 뛰어난 자가 관리가 된다’는 명제는 공자 이래 전통지식인의 이상이자 의무이기도 했다. 전통지식인들은 ‘도통(道統)’을 통해 현실권력인 ‘정통(政統)’을 제한하면서 권력 균형을 추구했으나, 춘추전국시대를 제외하면 지식인은 정치권력의 시너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일왕조의 수립과 관학(官學)의 성립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황제를 위한 통치기술자로 전락하면서, 지식인의 자존심과 기백도 점차 사라지고 권력에 의해 순치되어 갔다. 특히 명청(明清)대로 갈수록 지식인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고, 과거제가 팔고문의 형식에 얽매어 지식인의 자유사상 발전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질곡의 정치환경과 지식인의 경직된 사고방식은 중국이 근대화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주제어 :** 전통지식인, 사(士), 사대부, 정치권력, 유학, 인문도덕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이다(HY-2012-G).

## I. 중국 전통지식인의 개념과 특징

### A. 사(士)·사대부(士大夫)·지식인(知識分子)

지식인을 분석하는 것은 주류사회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현대사회의 지식인은 사회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는 하지만, 대중사회에서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통사회의 지식인 역할은 사회전체에 대한 통제와 교화뿐만 아니라, 황제와 백성 사이의 가교 기능까지 포함하여 정치·사회·문화의 핵심을 담당했다. 그래서 지식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 구성과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씨줄이 된다.

그런데 지식인 개념은 근대자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사(士)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방에서 규정하는 지식인이란 전문지식 이외에도 독립된 정신과 창조능력을 가지고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류의 기본가치에 대한 수호의지가 있는 ‘사회적 양심’을 의미한다.<sup>1)</sup> 즉 좁은 의미의 지식인은 주류가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측면에서, 관료로서의 의미와 지식 소유자로서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된 ‘사(士)’를 단순히 현대 지식인의 과거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는 기본적으로 당시 주류가치의 절대적 옹호자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정신과 창조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사’는 원래 보통 성인을 의미했으나, 춘추시대 초기에 학문과 기술을 겸비한 자라는 의미로 진화했고, 춘추 말기에 이르러서는 문사(文士)로 개념이 한정되었으며, 당(唐)대 이후에는 과거시험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독서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사’에 점차 높은 학식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강조된 측면에서, 현대 지식인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를 논하되 다스리지 않는(議而不治)’ 입장을 지켰던 제(齊)나라의 직하학궁(稷下學宮)의 학자들이나<sup>2)</sup>, 기존 질서에 대한

1) 孫適民·蔣玉蘭, 『中國古代士文化與知識分子現代化』, 湖南人民出版社, 2008, p.3.

2) 약육강식이 일상화된 전국시대에는 각국의 제후가 유능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영입해 제자

비판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건설을 주장한 공자와 맹자 등 사상가, 한(漢)대의 태학생(太學生)과 명(明)대의 동림서원(東林書院) 학생들도<sup>3)</sup>, 주류 정치질서에 비판적이었다는 견지에서 현대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식인의 범주를 좀 더 넓게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관료·사대부·신사·지식인 이 네 가지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즉 사대부라는 호칭은 의식형태와 문화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sup>4)</sup>, 사대부가 관직에 있을 때는 관료이고, 사대부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신사(紳士)이며, 사대부의 지적 기능은 현대 지식인의 그것과 같다는 것이다.<sup>5)</sup> 여기서 사회적 신분인 ‘신사’를 제외하면, 사대부는 바로 관료와 지식인의 결합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대부는 ‘관직에 있는 자’와 ‘문인’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한 사람이 관료와 문인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신분을 가지는 것이 드물지만,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문인과 관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레벤슨은 이 두 기능의 융합을 “최고의 문화가치와 최고의 사회권력의 눈부신 상징적 결합”이라고 평가했던 것이다.<sup>6)</sup>

물론, 현대 지식인과 고대 사대부의 차이는 분명하지만, 이 두 집단은 모두 문화권력을 향유하고 지식을 통해 사회계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사대부를 지식인의 전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글은 사대부와 지식인을 구분하는 것이

백가(諸子百家)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전국 7웅의 하나인 제나라에서는 수백 명의 인사가 모여 서로 논쟁을 펼쳤는데, 그들이 토론하던 곳이 작문 옆의 학궁(學宮)이었으므로 직하지학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 3) 동림당(東林黨)은 명대 말기에 학자와 관리들이 조직한 정치단체인데, 세도가들을 비판하다 정계에서 쫓겨난 고헌성(顧憲成)이 만든 동림서원(東林書院)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도덕성의 이완과 지적 연약함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면서 전통 유교가치관을 복귀시키는데 관심을 쏟았다. 이후 세력이 환관 위충현(魏忠賢)이 조직한 비(非)동림당과의 격심한 당쟁은 명나라 패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4) 사대부는 주나라 귀족 관원계급이었던 대부(大夫)와 사(士)가 나중에 결합되어 ‘관직을 지닌 자’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 5) 쉬지린 편저, 강태권 등 역,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을 말한다』, 도서출판 길, 2011, p.98.
- 6) 쉬지린 편저, 앞의 책, p.104.

목적이 아니라, 지식인이 어떻게 정치사회적 지배집단을 담당했고, 어떻게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었는가를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사’와 ‘사대부’ 및 ‘지식인’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 B. 중국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역할

중국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문주의이다. 즉 우주의 생성·변화의 원리가 궁극적으로 도덕의 원리에 따르고, 인간의 도덕은 하늘의 도(天道)를 반영한다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문주의는 바로 사대부인 지식인을 통해 구현되며, 사대부가 도덕률을 규정하고 계승하는 골간을 담당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덕과 인격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게 되고, 가치판단은 개인의 수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치기준의 상대성’이 일찍부터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중국문화의 도덕이란 모두 ‘내면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신이 근본이고 자신이 뿌리’라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자력 수행에 의한 상대적 가치 존중은<sup>7)</sup>, 외부에 존재하는 신이 규정해준 절대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서양의 인식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인문주의를 보존하고 계도할 책임이 주어진 중국지식인의 최대 임무는, 바로 인문정신의 대중화이다. 도덕의 사회화를 책임진 지식인의 이런 역할은 근대사회 이전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덕의 사회화 혹은 대중화는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끊임없는 지속과 확산과정이다. 따라서 지식인은 이데올로기 수호자 역할을 통해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황제권력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봉건제를 이천년 이상 유지하는

7) 사대부들은 자력에 의한 수행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불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쉽게 소화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선종(禪宗)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성불할 수 없는 중생도 모두 불성이 있다”는 불교 교리가 내적 자기규제를 강조하는 중국인의 인식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이렇게 인문정신의 대중화는 지식인 정치참여의 당위성을 규정하는 핵심논리이자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했다. 따라서 지식인이 공부하는 목적도 바로 관리가 되어 세상을 구제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데 두게 되었다.

그래서 고대 중국지식인 즉 사대부가 관직에 나가려는 명분과 논리는 명쾌하다. 사대부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첫째, 정치를 통해 ‘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를 명시한 유가정신에 따라 그들은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었다. 유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유일하게 관직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문이 뛰어난 자가 관리가 된다(學而優則仕)’는 명제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둘째, 관료제도 내부에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비판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에, 관료이자 동시에 비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은 관료에게 ‘간언(諫言)’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했다. 즉 간언은 지식인의 덕목이자 기개를 드러내는 것이고, 도(道)가 세(勢)에 우선한다는 유가의 존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행위였다. 또한 간언은 유학정신인 도통(道統)으로 현실권력인 황제의 정통(政統)을 견제하여, 성현(聖賢)의 권위가 제왕(帝王)의 힘보다 앞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셋째, 관료의 길은 성숙의 유기적 조화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사대부는 사회 전체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지식계층 사대부가 생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녹봉을 받는 길이었지만, 이들이 관료가 되려는 이유는 이렇게 천하를 위한다는 대의명분이었던 것이다.

이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중국지식인의 가장 큰 약점은 현실에서는 지식인이 정치의 유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sup>8)</sup>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에 약하지 않은 지식인 집단은 드물지만, 중국지식인은 왜 ‘도통’을

8) 공자의 제자 염구(冉求)도 참월로 권력을 잡았다고 공자가 매우 싫어한 노나라 계(季)씨 밑에서 일을 해, 이를 안 공자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사욕을 버리는 것은 공자의제자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앞세운 명분론이 강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에 약한 것일까? 그것은 관료이자 문인인 사대부의 존재자체에 그 답이 있다. 즉 중국지식인은 관료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는 명분을 유기적으로 설정해 놓았으나, ‘정치를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경제제민(經世濟民)을 위한 사명감으로 관료가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중국지식인의 참정(參政)논리는 개인적 수양을 통해 선정을 펼칠 수 있다는 도덕론과 백성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편다는 양정(良政)론으로 무장되어 있다. 하지만 적은 관직 자리와 관료 이외에는 다른 경제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 사회경제구조상, 관직에 대한 사대부들의 열망은 어떤 대의명분보다도 컸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도통’을 강조하고 ‘사대부정신’을 내세우지만, 모든 왕조는 사대부와 환관의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편, 지식인의 가장 큰 이상은 군자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인의 인격이상(人格理想)인 군자 개념은 춘추전국시대에 형성되었다. 유가가 아직 정치권력의 중심 이데올로기가 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지식인의 이상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가의 문화적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은 유가와 도가라고 할 수 있는데, 평민에게 도가의 영향이 컸다면, 지식인에게는 유가의 영향이 더 직접적이었다. 즉 지식인이 관직에 있을 때는 유가형 인격이 중심이지만, 세상이 어지럽거나 퇴직을 한 이후에는 주로 도가의 은사형(隱士型) 인격을 보였는데, 권력관계에서 보면 유가의 영향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지식인에게 유가의 영향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유가의 인격이상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가의 인격이상은 다양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정도의 인격을 요구하는 다양성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왕은 군왕의 도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신하는 신하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성현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믿었으며, 평민은 평민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공맹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유가는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전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이런 각 계층의 각기 다른 인격이란, 계급질서를 인정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의 이런 사상은 지배질서를 강화하고 신분질서를 혁파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지식인이 숭배하는 군자인격은 ‘인의(仁義)를 갖출 것과 내재적 자각을 통해 통해 도(道)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 군자인격을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의(義)와 이(利)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는 것인데, 이 둘이 충돌할 때는 ‘사리’를 버리고 ‘도의’를 취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진 요구는 ‘사욕’에 노출된 많은 지식인들을 갈등하게 했지만, 대다수는 그 유혹을 이기는 못했다.

고대 중국지식인 인식상의 또 다른 특성을 보면, 중국의 도덕주의 인문정신은 공부도 전문성을 익히기보다는 도덕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 즉 공부는 도덕을 체화하는 데에 있지, 지식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지식인에게는 ‘지식을 위한 지식’을 연구하는 전통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본질적 개념까지 완벽하게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관통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립하는데 약해, 개별 사물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회과학적 사고는 잘하지만, 수학의 절대적 기준이나 자연과학의 추상적 개념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런 특성은 중국문화에 ‘가치기준의 다원성’과 ‘가치판단의 상대성’을 짙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은 상대방의 견해를 쉽게 인정하는 유연성과 포용력은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쉽게 뒤집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시시비비’를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지만, 중국문화에는 그만큼 객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지식인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사리판단과 그에 따른

방향제시를 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치기준의 다원성’ 때문에 중국 ‘지식인’을 지식인이 아닌 ‘독서인’이라고 부르는 쉬푸관(徐復觀)의 견해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도덕의 완성체로서의 군자(君子)를 지향하는 중국지식인은 학문적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 그들은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독립된 학문으로 분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악·서화 같은 예술이나 수리학·자연과학도 인문 수양을 하는 도구이자 마음을 닦는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술과 자연과학이 높은 수준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독립적인 학문이 될 수 없었다. 즉 전통지식계는 하나의 사물을 끝까지 연구하여 본질적인 개념을 파악하려는 자연과학적 치열함이 없었다. 어떠한 지식이라도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거의 배출되지 않았다.<sup>9)</sup>

흥미로운 사실은, 막스 베버가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개념을 들어 중국지식인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논증했다는 것이다. ‘군자불기’는 직업적 전문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에 관한 개념이다. 지식인이 이상으로 삼았던 군자는 인의(仁義)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덕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겉으로는 원만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에는 강한 신념과 원칙을 소유한 외원내방(外圓內方)의 이상을 실현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군자불기란’ 학문이나 지식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베버는 이 개념을, ‘군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기능적으로 좁게 해석하고 말았다. 하지만 베버가 비록 군자불기를 잘못 이해했지만, 중국지식인들이 전문성을 멀리하고 모든 방면을 두루 섭렵하려고 한 것만은 사실이다.<sup>10)</sup>

9) 청말에 들어서야 지식의 전문성과 분업이 강조되면서 기존의 통유(通儒)의 이상 혹은 군자불기의 관념을 대신하게 되었다.(쉬지린 편저, 앞의 책, p.132.)  
 10) 공자가 특별히 아낀 제자는 안연(顏淵)이었는데, 그는 전문적인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는 군자는 특별한 한 가지 전문기술자가 아닌 인문정신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군자불기(君子不器)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 II.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권력

### A. 유가의 사회문화권력

고대 중국정치 특징은 통치시스템이 유가의 통치관념과 법가의 실천이 결합한 형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가가 법가를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는 ‘법가의 유가화’를 추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가의 가혹한 법률체계를 순화하고 사회교화를 중시함으로써, ‘관료제의 유가화’를 통해 문화적 지배를 강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유가관념이 항상 사회전체를 관통했기 때문에 유가가 주류사회에서 밀려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한나라 이전에는 유가가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극심한 권력재편과 계급이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덕을 앞세운 유가이론이 제후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었다. 격렬한 권력투쟁의 시기에는 부국강병과 국왕권력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가가 가장 현실적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졌다. 공자가 세상을 주유하였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공자의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나, 맹자가 제후들을 훈계하고 다닐 때도 단지 융숭하게 접대만 했을 뿐 그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모두 민심을 수습하고 명사(名師)를 존중한다는 선전을 함으로써 인재를 영입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 실제로 맹자가 제후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도 유가의 이론과 처방이 현실 정치 무대에서 결코 통용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가는 제자백가 이래 어떤 방법으로 정치사회권력을 행사해 왔을까? 춘추시대 이래로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보면, 통치자는 늘 법가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상앙(商鞅)이 진나라에서 법가를 시행하여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반면, 유가는 정치권력의 실제적 운용에서 별다른 성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초기 유가가 권력핵심에 진입하지 못한 것은 춘추전국시대가 극심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는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이 시기에 국가관계와 군신관계, 그리고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모두 도덕화

하려는 유가 이데올로기는 현실과 부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가는 권력으로부터 오랜 기간 배제되어 있었다.

전국시대에 유가가 권력으로부터 배척당했다고 해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 법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유가는 점차 문화권력을 장악해 나갔던 것이다. 유가는 주로 교육을 통해 사회의 주요 지식역량을 길러내는 방식으로 문화시스템을 장악했다. 이런 교육의 성공은 유가가 한 나라에서 다른 모든 학파를 축출하고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우뚝 설 수 있었던(罷黜百家, 獨尊儒術)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유가는 문화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독보적 지위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이후에도 여러 황제가 법가를 통치에 운용하기는 했지만, 유가의 도덕적 견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단단한 그물망을 형성했다. 즉 초기 유가학파는 정치를 도덕화하려는 시도가 종종 좌절되었지만, 교육을 통한 문화권력 장악과 점진적인 침투를 통해 유가가치가 사회에서 먼저 권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정치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 황제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추종하는 유가의 종법질서와, 강력한 법률의 공평한 적용을 주장하는 법가사상을 적절하게 병행하는 것이 통치안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유가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과 사회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유가사상은 봉건적 정치안정에 유리했기 때문에 주류 이데올로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 유가는 교육을 통해 그들의 핵심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고, 결국 유가가치를 정치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백성의 뜻이 하늘이라는 천명(天命)사상이나 개인수양에 기초한 품성의 강조를 통해서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결국 권력의 외곽에서부터 성과를 낸 유가는 자신의 가치를 정치화함으로써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황제의 권한을 통제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상경쟁이 종료되고 난 한나라 이후, 유학이 관방의 학문이 되면서 초기 유가 지식인의 기백은 사라지고 권력에 길들여진 온순한 관료로 전

락했다. 한문제 때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로 제자백가의 모든 학설을 축출하고, 오직 유가만이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되도록 한 것은 분명 유가의 승리이지만, 이때부터 유학은 이미 공맹(孔孟)의 유학이 아니었다.<sup>11)</sup> 학자의 공부는 거대한 관료체계를 유지하는 위한 기능인 양성수단으로 전락했고, 공맹의 가르침은 이미 순자의 예교주의, 법가 관념, 음양의 우주학설, 도가사상 등 당시 유행하던 신앙들이 한데 섞인 것이 되어버렸다.<sup>12)</sup>

도(道)을 앞세워 세(勢)에 당당했던 지식인들은 분서갱유 이후 권력의 찬서리를 맞으면서 이전의 기백을 완전히 상실했다. 전국시대에 괄외(郭隗)는 제후 앞에서 당당히 ‘스승이자 친구(師友)’라고 칭했지만, 한나라에 와서 이런 장면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한나라는 지식인(文士)을 어느 왕조보다 우대하였기 때문에 귀족화된 지식인이 많았지만, 제왕의 친구가 아니라 모두 충신으로 행동할 뿐이었다. 한나라는 교육과 경학(經學)을 중시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식인이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화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귀족으로 변신한 사족(士族)들은 기존의 귀족이나 신흥 사족과 복잡한 혼인관계를 통해 새로운 문벌을 형성했다. 이렇게 구축된 문벌은 남북조시대까지 귀족정치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었다. 결국 교육을 담당했던 유가는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그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귀족으로 변신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문화권력의 정치권력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자산의 정치자산으로의 전환은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그 기본적인 패턴은 21세기인 오늘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11) 한나라 때 숙손통(叔孫通)은 자신과 제자가 적당한 관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가 지식인의 진분을 스스로 낮추면서 제왕의 존엄을 높이는 궁정예의를 설계하는 등 스스로 지식인의 존엄을 손상시켰다. 동중서(董仲舒)는 천인합일과 우주론을 제창하여 황제의 권한이 하늘의 뜻임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흐르게 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듯 유가는 진정한 이데올로기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타협과 굴종을 통해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유가의 전면적인 통치라 아닌 유가화한 법가의 통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2) 쉬지린 편저, 앞의 책, p.84.

## B. 정통(政統)에 맞선 도통(道統)의 정신

유가의 인성관은 ‘인선설(人善說)’이다. 유가는 수양을 통해 인성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신(修身)을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전제로 삼는다. 이는 사회적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고 부를만하다. 이런 문화적 특징이 중국에서 정치와 도덕의 결합을 추구하도록 했다. 즉 정치와 도덕은 분리할 수 없으며, 도덕이 정치에 우선한다는 논리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의 ‘도’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정치적인 차원의 ‘도’로서, 요순시대의 도(堯舜之道) 혹은 고대 성현이 후대를 위해 남긴 법도(先王之法)인 예악(禮樂)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계급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대부는 선정(善政)을 베풀어 백성이 사람의 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가 ‘도’는 ‘인정(仁政)’으로 귀결된다고 말한 인본사상의 실현을 의미한다. 유가의 두 번째 ‘도’의 의미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효제(孝悌)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윤리를 규범화 하고,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에서 강조하는 도는 항상 정치와 도덕이라는 두 측면이 융합한 정치사상이자 윤리의식인 것이다.

이런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전통지식인의 임무는 인문정신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과 출사(出仕)를 통한 경세제민의 사회참여였다. ‘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신념은 춘추시대 이래 청나라가 붕괴될 때까지 계속된 지식인의 전통이었다. 이들이 관직에 나아가서도 지식인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태도는 바로 ‘도’를 앞세우는 전통 때문이었다. 즉 ‘도’를 지키는 것은 관료의 입장이 아니라 사대부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받고 실행하는 관료이면서 동시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황제의 전횡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던 것이다. 곧 중국지식인은 관료

이자 비판자라는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전통지식인이 관직에 머물면서 황제와 고위관리를 비판하는 것은 ‘간언’과 ‘상소’ 및 탄핵으로 구체화 되었다. 특히 황제의 전횡과 잘못에 대한 간언을 그들의 ‘천직’이라 여겼다. 이를 형식논리로 보면 제도화된 비판, 혹은 합법화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간언이 제도화되고 합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이 간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가의 ‘도’가 제왕의 권위보다 높다는 정신 때문이었다. 이들은 제왕의 징벌이 도리어 지식인에게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이로 인해 징벌을 받은 지식인은 오히려 사회적인 명성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도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재야의 지식인이 더욱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정통(政統)보다 도통(道統)을 우선하는 유가의 전통을 바탕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책무로 여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과의 긴장이 클수록 도통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재야 지식인의 비판정신은 세상의 어지러움에 필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신의 발현이자,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이었다. 성리학이 확립된 송대 이후에는 “세(勢)는 제왕의 권한이고, 이(理)는 성인의 권한이다”고 하면서, 이(理)의 존엄을 강조하는 명분론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공자를 더욱 추존하고 공자의 정신으로 현실권력을 견제한다는 이상을 더욱 높게 평가했다.

그런데 사대부들이 공자를 소왕(素王)으로 높이 떠받든 이유를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면, 황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관료들의 명분용이었다. 즉 공자를 내세워 도통(道統)이 정통(政統)에 앞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농후했던 것이다. 만약 현실의 제왕이 공자의 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기껏해야 임시방편의 제왕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권력현실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도통을 앞세워 극복하려는 지식인의 일종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공자를 앞세운 것은 지식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잡은 방편이기도 했다. 춘추시대는 많은

사회비판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에 공자가 유일한 비판자는 아니었지만, 역사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의 정신은 ‘춘추필법(春秋筆法)’으로 형상화 되었다. 역사를 냉정하게 논하고 추상같이 비판한 공자의 태도는 후세 지식인들이 지켜야 할 역사인식의 기준이 되었다. 이로써 공자의 가르침은 역대 중국지식인이 도에 바탕을 둔 냉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통에 대한 자부심이나 비판의식 존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대부는 군주제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대부가 황제와 권력분점을 통해 계급적 이익을 누렸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에 군주제를 부정하는 지식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적 수수께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C. 전통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 변천

‘사(士)’가 지식인의 원형이라고 해도, 춘추시대 이전의 그들은 아직 지식인이라 할 수는 없다. 춘추 이전 ‘사’는 평민은 아니지만 귀족계급 중 가장 낮은 층에 속해 계급적인 한계가 뚜렷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위상은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천자(天子), 제후(諸侯),大夫(大夫)를 위해 봉사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가 배우고 전수할 수 있는 지식은 관학의 하나인 육예(六藝)에 한정되어 있었다.<sup>13)</sup> 따라서 현대적인 관념에서 인식하는 비판자로서의 지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처음부터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춘추시대에 이르러 ‘사’의 사회적 지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봉건질서가 무너지면서 귀족의 말단을 담당에 있던 ‘사’는 평민인 서민

13) 육예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하는데, 이는 지배계급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후 등 귀족은 실무적인 처리를 ‘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예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았다. 그래서 육예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를 술사(術士) 혹은 유(儒)라고 불렀는데, 사대부로 대표되는 ‘유가’는 여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과 더 유사하게 되었고, 평민 가운데서도 지식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 ‘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는 귀족보다는 평민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전국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사’가 더 이상 귀족계급에 속하지 않게 되면서, ‘사’는 평민을 의미하는 사농공상 사민(四民)의 가장 윗자리 지위로 굳어졌다.

그렇다면, ‘사’가 귀족의 말단에서 사민(四民)의 우두머리로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봉건질서에서 해방된 ‘사’는 신분적인 자유와 사상적인 해방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이론으로 무장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학설을 팔러 다닌 것이 바로 제자백가(諸子百家)이며, 이들의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가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이 시대는 모두 각국 제후들에게 자신의 학설을 유세하고 다니던 지식경쟁 시대이자 사상해방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분의 해방은 사상의 해방을 가져와 초월적 정신이 출현하였다. 이런 새로운 정신의 출현은 현실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게 만들었으며, 인간생활의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도(道)를 탐구함으로써 중국 ‘인문정신의 틀’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국시대의 ‘사’는 중국지식인의 원형을 이루었고, 정치권력에 대해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위상을 지닐 수 있었다.

춘추시대부터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실력본위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후국들의 약육강식이 일상화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혼란은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등장을 촉진하여 온갖 이론으로 무장한 자유사상가들이 나타났다.<sup>14)</sup> 전국시대에는 이 자유로운 지식인들은 유사(遊士)라고 불렸다. 그런데 ‘유사’는 경제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유세 이외는 활동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신분상의 자유로움과 지적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기

14) 전국시대의 ‘사’는 대략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학사(學士)는 전문적인 책을 쓰면서 학설을 세워 정치문화 방면에 공헌한 부류이며, 책사(策士)는 종횡가이며, 술사(術士)는 천문, 역산, 지리, 의학 등에 종사한 부류이고, 식객(食客)은 최하의 계층으로 유력자의 집에 기거하는 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를 대표하는 부류는 학사라고 할 수 있다.

는 했지만, 처음부터 통치자의 패권전략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벼슬을 얻으려는 정치적 결연이었다. 지식인의 이런 초기의 특성이 중국 역사에서 지식인의 위상과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전국시대는 이들의 재주가 높게 평가되었고, 초기 지식인의 기백이 합쳐지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치권력에서 보면, 지식인과 권력관계는 상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 면에서 전국시대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周)대의 봉건질서 붕괴 이후 중앙집권 질서가 형성되기 이전,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실력본위 사회에서 지식인집단의 효용성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백여 개의 제후국가가 진나라로 통일되는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제후국의 멸망사였다. 따라서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지식인을 중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식인이 권력자를 훈계하던 유일한 시대였다. 국가 존망의 전쟁이 빈번하던 시절에 지식인을 홀대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다(得士者強, 失士者亡)는 것이 너무 분명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맹자가 양혜양(梁惠王) 등 여러 제후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심지어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말하고 다녀도 제후들이 그를 후대할 수밖에 없었다.<sup>15)</sup> 즉 전국시기에 유사와 제후의 관계는 ‘지식과 권력의 교환’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국시대에 지식인의 위상이 높은 것은 이런 객관적 조건 이외에도, 제자백가의 낭만적 기백과 함께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체적 자각과 자존의식은 후대의 지식인들이 전국시대를 가장 부러워한 주체적 조건을 형성했다. 전국시대 지식인은 춘추말기 귀족적 풍모가 남아 있던 데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15) 맹자는 제후를 비판하고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논했지만, 항상 제후들의 후한 대접을 받아 많은 수레와 제자를 이끌고 좋은 넉넉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묵가(墨家)는 맹자가 백성을 팔아 호의호식한다고 비판했다. 즉 맹자의 행태는 절대 제후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를 위해 죽는다(士爲知己者死)'는 협객의 기백과 낭만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꽤 존경받는 대상이었다.<sup>16)</sup> 따라서 전국시대 지식인은 경제적 기생생활을 하는 신분이면서도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도취되어 있는 이중성이 강했다.

이런 지식인의 전성기도 전국시대의 종결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진나라의 천하통일로 전국시대가 끝나자 이들의 역할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통일국가를 유지하는데 분란만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어, 진시황에게 분서갱유(焚書坑儒)를 당함으로써 그 기능이 완전히 끊어졌다. 결국 진나라에서는 지식인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지식기사'인 '문리(文吏)'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관료제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행정요원의 수요가 증가했다. 진나라는 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자로 구성된 '문리'를 두었는데,<sup>17)</sup> 이로써 이론가들이 득세했던 그 이전 시대와는 달리, 실무형 관료가 중심이 된 '문리정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는 권력을 장악한 법가 사상가들이 제자백가를 대표하는 '학사'들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즉 진나라는 전문행정가만 필요로 했을 뿐, 이론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지식인의 정치참여를 강력하게 통제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문리시대'가 전개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미 상당 정도의 사회분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이 시기는 이미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재정이나 치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행정체계가 운영되었다.

진나라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어느 때보다 낮았다고 평가된다. 이런 배경에는 당시 권력과 지식인관계에 대한 권력실세 이사(李斯)의 인식이

16)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명예롭게 죽는 것을 추구하는 명분론이 강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특징이다. 당시 많은 유사와 협객을 지배했던 정신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17) 관리(官吏)는 관과 리의 합성어로, 관은 벼슬이 높은 자를 의미하고, 하급 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관료를 통틀어 말할 때는 이(吏)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통 이부(吏部)는 관리를 선발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사는 제후국들이 병립할 때는 사상의 자유를 통한 경쟁이 사회발전에 유리하지만, 국가가 통일된 이후에도 기이한 이론으로 사상가들이 명성을 얻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통일이 되자, 춘추시대 중엽부터 시작된 지식인과 권력의 균형·협력도 권력의 일방적인 주도권 행사로 막을 내렸다. 동시에 지식인들은 권력의 외부압력과 내부적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지식인의 자존감을 상실하면서 점차 비판자로서의 기능을 잃어갔다.

학문과 권력의 경쟁의 시대에서 꽃을 피웠던 지식인 전성시대는 통일왕조의 등장과 함께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지식인의 기능주의시대로 변화했다. 진나라 때까지 행정을 담당했던 문리(文史)는 한나라에 들어서는 학사(學士)가 주류를 형성한 ‘사대부정치’로 변한 것이다. 이는 ‘학사’와 ‘문리’의 결합이기도 하고 ‘지식인’과 ‘관료’의 혼용이기도 한데, 유학(儒學)이 관학(官學)이 된 이래도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써 사대부는 정치를 담당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지식과 문화를 선도하는 문인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한무제(漢武帝) 때 설립한 태학(太學)은 사대부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전국시기 ‘사(士)’의 기백은 사라지고, 학문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지식인과 권력의 관계는 급격히 황제로 기울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유학 이외는 모두 봉쇄되는 비극을 가져왔다. 한무제의 문화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식인을 우대하면서 지적 예측을 가속화 한 이 문화정책이 중국지식인의 가치관과 인격유형, 사유방식 및 행동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국가가 다시 여러 왕조로 분열된 위진남북조 시기는 혼란한 정치상황과 문벌지배에 의한 귀족정치가 강화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지방의 여론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는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가 시행되었지만, 귀족의 세습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정치적 혼란과 문벌의 토지독점은 귀족 이외의 지식인의 활동공간을 극히 축소했다. 그리고 북방민족의 지배와 불교

의 유입은 유가사상에 대한 회의를 불러왔다. 이로써 노장사상으로 유학을 재해석하려는 현학(玄學)이 유행하고,<sup>18)</sup> 사회는 퇴폐적 분위기가 농후했다. 이런 경향은 지식인들이 정치가 아닌 예술분야에 몰두하는 조류를 형성했다. 지식인들은 혼란한 시대상황을 구실로 사회를 구제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만연한 부정부패 속에서 퇴폐와 향락에 빠져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술과 문학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백성으로부터 권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 지식계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3백여 년의 혼란을 극복하고 중국을 재통일한 수(隋)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 방법으로 과거를 통한 완료충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당(唐)대를 거쳐 송대에 꽃피운 과거제도는 사대부정치를 제도화했다. 그리하여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관료’와 ‘문인’이라는 이중성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문인정치로 대표되는 중국 특유의 정치문화를 구축했다. 또한 과거제는 황제와 신사계층이 연합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공고한 동맹의 토대이자, 황제 중심의 봉건제를 이천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과거제도는 역사상 최초의 직업공무원제도를 정착시킨 획기적인 발명인데, 이를 통해 황제와 사대부의 이해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중국봉건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하겠다.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귀족의 반발을 억누르며 과거제를 도입한 수나라는 왕조가 기간이 짧아 과거를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그 뒤를 이은 당나라는 귀족중심의 사회였음에도 과거제를 통해 인재를 부분 선발하는 혼합형제도를 운영했다. 귀족의 영향력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과거시험도 대신들의 사전 윤택인 ‘첩(牒)’을 받아야 하는 불완전한 제도이기는 했다. 귀족과 신진 세력이 일정한 타협을 통해 관료를 선발했지만, 귀족의 국정 경험과 신진사

18) 위(魏)·진(晉) 시대에 나타난 철학 사조로,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유가의 경서들을 해석하며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전개하였다. 3현(三玄)이라고 불리는 도덕경(道德經)·장자(莊子)·주역(周易)의 연구와 해설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 데서 현학이라는 명칭이 비롯되었다.

대부의 혁신적 정신이 결합한 결과, 당나라는 안정된 정치 위에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송(宋)대는 가장 완성된 과거제가 시행되어 귀족사회를 완전히 일소하고 새로운 문화를 꽃 피웠다. 당대의 귀족세력은 ‘안사의 난’ 이후 세력을 잃기 시작했는데, 송태조의 문치주의는 사대부세력이 사회주류로 전면적으로 등장할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다 남송(南宋)시대는 풍부한 생산력과 성리학(性理學)의 등장으로 지식인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성리학은 정치 지배 서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측면에서 지식인이 사회의 중심이자 이데올로기 수호자라는 사명감을 확고히 심어준 논리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아이러니한 것은, 군신의 도리를 종교화 한 성리학이 당시에는 황제권력에 의해 주희(朱熹)가 사망한 후 오랫동안 억압받고 배척되었다는 것이다. 오리려 한쪽을 지배한 몽고의 원나라 대 주희가 부활되고 성리학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과거제 실시로 인한 지식인과 권력의 관계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먼저, 과거제도 자체가 중국문화의 커다란 약점으로 변질되었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제도 시행 전에는 인재선발은 행의(行義)와 명절(名節)에 기준하여 사회여론에 의한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과거시험은 단지 문장 짓는 능력만 측정하여, 개인의 인품과 도덕행위를 평가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도덕중심의 인문문화전통을 침몰시켰다. 이로써 여론을 중시하던 청의(淸議)정신과 민주정신은 사라지고, 사대부가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제도의 긍정성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는 입장에 따르면, 첫째, 과거제도는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함으로써 여론이라는 명분으로 대부분 지방호족 자제를 중심으로 선발한 제도(鄕議里選)의 폐해를 극복했다. 둘째, 과거제는 인재선발 권한을 조정해 전적으로 귀속시켜,

19) ‘임금과 신하가 있기 전에 이미 군신의 도리(理)가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있기 전에 부자의 도리가 존재했다’는 성리학의 주장은 모든 사회질서관계를 리(理)로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려 했다.(孫適民·蔣玉蘭, 앞의 책, p.185.)

국가통일과 황제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셋째, 과거제도는 문벌세족의 권력을 붕괴시켜 새로운 신사계층이 사회의 주류로 등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즉 과거제의 시행은 명백한 역사의 발전이자 진보라는 판단이다.

과거제를 통해 사대부는 1천여 년 이상을 사회 주류세력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학문적 소양 수준이 곧 관료가 되는 전제가 되는 독특한 동양문화형성도 과거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과거제도는 관료가 단지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부모(父母官)’라는 백성-관료의 도덕적 연계장치로도 기능했다. 하지만 과거제 시행 이후 지식인은 지배계급의 이익은 관찰시켰지만, 사회전체의 이익의 대표자는 되지 못했다. 그리고 황제권력에 대한 견제기능도 점차 약화되면서 정치적 위상도 하락했으며, 사회경제 분화에 따라 사회문화 권력도 역시 점진적인 추락의 길을 걸었다. 결국 과거제도는 지식인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통로와, 유교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주류 이데올로기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황제와 지식인의 제도적 결합을 보장하는 장치였다. 그러나 개인적 영달은 권력에 더 많이 무릎을 꿇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아픔의 길이기도 했다.

관료가 되기 위한 학문의 내용이 변질된 것을 살펴보면, 명(明)대는 과거 시험 답안해석이 유일하게 주희의 주석에 근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성현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하고, 성현의 말씀에 반하는 의견제시가 금지되는 풍토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지식인의 사고가 경직되고 창조력은 더욱 빈약해졌는데, 이런 현상은 후에 중국이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명대는 중국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후퇴한 시기이다. 명대는 재상제도가 폐지되고, 황제의 친정이 강화된 시대였다. 그래서 이를 보좌하는 측근인 대학사(大學師)와 환관의 전횡이 심한 반면, 역대 왕조에서 무능한 황제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명대는 지식인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문자옥(文字獄)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지식인의 글과 말을 억압했다. 따라서 명대는 상품경제가 발전하면서 소설과 연극 등 대중문화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지식인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정치권력과 의 관계에서 보면, 지식인들의 굴종은 이전 시기보다 두드러졌던 때이기도 하다.

소수의 만족(滿族)이 한족(漢族)을 지배하던 청(淸)대는 지식인에게는 숨막히는 질곡의 시기였다. 청나라는 원나라 무력통치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족 문화 동화정책 등 문화통치를 하였지만, 주기적인 ‘문자옥’을 일으켜 지식인의 사고를 반복해서 쥐어짰다. 청대는 역사상 가장 여러 번의 문자옥과 많은 지식인을 처형했지만, 한편으로는 『사고전서(四庫全書)』 등 많은 편찬사업을 통해 지식인의 참여를 보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청대에 고증학이 발전한 것은 이런 사상통제를 피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출발했다. 이를 보면, 당시 지식인의 고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청대는 명대부터 시행된 팔고문(八股文) 과거시험 방식이 더욱 경직되면서 지식인의 창조적인 사고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sup>20</sup> 명청대는 대중소설이 인기를 누리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엘리트문화는 당송에 비해 크게 퇴조했고, 경제발전에 비해 대중문화의 저변 확대도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지식인은 엘리트문화를 통해 사회를 교화하고 계도하는 기능이 축소되면서 그 위상도 더불어 하락했다. 특히 정치권력과 의 관계는 더욱 불균형이 심해져 관료는 황제 앞에서 스스로를 ‘노복(奴才)’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 Ⅲ. 전통지식인의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 A. 통일왕조 이전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중국인들이 이상사회로 동경하는 삼황오제(三皇五帝) 시대는 생산력이 극히 낮아 계급적 갈등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성적인 결핍경제에서는

20) 팔고문은 중국 명청대 과거시험의 특별한 형식의 문장으로, 1370년 향시(鄉試)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후 응시생을 힘들게 했다. 고(股)는 독특한 긴 대구(對句)로 되어 있는데, 마치 8개의 기둥을 세운 듯하여 이런 명칭이 생겼다.

공동체 내의 단결만이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집단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닌 현명한 안내자의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권력이양의 모범으로 인식된 ‘요순(堯舜)의 선양(禪讓)은 계급모순과 권력이익이 크지 않은 시기에만 가능한 극히 원시적인 정권이양이었다. 많은 국왕이 요순을 흠모하면서도 누구도 다른 성씨에게 왕위를 선양하지 못한 것은 생산력이 이미 크게 높아져 국왕의 이익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즉 권력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가장 큰 힘이고 확실한 방법이 된 것이다.

주(周)나라 때까지는 이런 이익창출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봉건계급 질서이고 종법(宗法)사회였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그 계급사회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전문관료가 필요했다. 기존의 계급적 신분질서가 붕괴되면서 계급충돌이 격렬해진 춘추시대에 이르자 전문관료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결국 제후는 전문지식인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했고, 관료는 전문지식을 통한 권력을 원했기 때문에 이들은 약육강식의 춘추전국시대에서는 이익공동체로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문관료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관료와 지식인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한 개인으로 표현되었고, 교육은 권력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정착되었다. 춘추시대부터 정착된 이런 교육기능은 미천한 신분이 계급상승을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역할을 했다.<sup>21)</sup>

춘추시기에는 관료를 선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세관(世官)으로 봉건제의 당연한 제도인 세습직위로 귀족집단 내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다음으로, 일반관리를 충원하는 중요한 통로로 천거제가 활용되었다. 제나라 관중(管仲)이 포숙(鮑叔)의 천거로 재상이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천거제도는 각국의 인재경쟁이 심한 이 시기에

21) 공자가 가장 아낀 제자였던 안회(顏回)도 매우 빈한한 집안 출신이었다. 청빈하지만 고아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일단사일표음(一單食一瓢飲)’이라는 말은 바로 이 안회의 고사에서 나왔다.

귀족출신이 아닌 인재가 권력에 다가가는 지름길이기도 했다. 천거제는 실제로 재야의 명사나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과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인재배양과 채용이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몰락한 귀족이나 평민출신이 관료로 진입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 춘추시대 많은 나라는 국립교육기관으로 국학(國學)이나 향교(鄉校)를 두었지만, 공자가 처음으로 사학(私學)을 실시한 이래, 명망가에게서 수학하는 수가 훨씬 많아졌다. ‘학문이 뛰어난 자가 관직에 나간다(學而優則仕)’는 공자의 교육사상이기도 했는데, 이는 후대 지식인들이 출사하는 당위성을 제공했다.

춘추시대는 종법제도가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실력본위의 사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는 빈천한 신분의 인재에게 엄청난 자국이 되어, 거대한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게 했다. 또한 교육이 신분상승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사학이 발달하고 지식인을 우대하는 사회기풍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중국 사상사에서 가장 다양한 이론과 주장이 등장했고, 자유로운 사상경쟁이 중국의 찬란한 인문문화를 꽃 피게 했다.

춘추시대에 존재했던 일백여 제후국은 전국시대는 10여개 국가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은 많은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이었기에 각국의 제후들은 국운을 걸고 현명한 지식인을 모시고자 했다. 전국칠웅 가운데 세력이 가장 약하고 문화적으로도 야만국 취급을 받던 진나라가 결국 통일을 이룩한 것은, 바로 인재를 가장 많이 초빙했고, 초빙한 인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면서 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상양(商鞅)인데, 상양의 변법이 시행되면서 진나라는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시대 한 사람의 유능한 인재가 국가 흥망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각국의 제후가 부국강병책을 연구하는 인재를 극진히 대하자, 제자백가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기개를 가지게 되었다.<sup>22)</sup> 제나라 선

22) 연(燕)나라 소왕(昭王)이 부국강병책을 묻자 곽외(郭隗)는, “제왕은 스승을 옆에 두고, 왕자는 친구를 옆에 두고, 패자는 신하를 옆에 두고, 망국의 왕은 노복을 옆에 둔다(帝者與師



왕(宣王)은 취현관(聚賢館)을 설치하고 천하의 인재를 모으고자 했고, 전국 시대 사군자(四君子)도 각각 수 천의 식객을 두어 지식인의 지혜를 활용하고자 했다.<sup>23)</sup>

하지만 이 시기 지식인의 모습은 아직 유가의 이상적인 모델인 군자의 태도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계급과 지배권력의 극심한 변동기에 군자의 인격이 주류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격변하는 세상에서 오직 승자가 옳다는 ‘승자독식주의’는 도덕보다는 권모술수와 책략연구에 매진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손자병법’ 등 각종 병서와 ‘귀곡자’와 같은 책략을 다룬 서적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지식계의 정신적 기백이 가장 강했던 제자백가들의 활동기였지만, 보편적인 사회현상은 책사들의 ‘세속형’ 인격이었다. 세속형 인격은 주로 빈천한 출신이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는 주인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함으로써, 댓가를 구하는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협객의 기백이 강했는데, 진시황을 시해하려던 형가(荊軻)나 오왕(吳王)에 충성했던 오자서(伍子胥)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앞세운 종횡가(縱橫家)들이나 권력을 찾아 불나비처럼 떠돌던 책사(策士)들의 행태는 후대 중국 지식인의 행동준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24)</sup>

한편, 전국시대에 각국이 고급 관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유세(遊說)와 추천(推薦) 및 초현(招賢)이 있었다. 유세는 자신의 책략을 들고 제후를 찾아다니거나 정치적 주장을 써서 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세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유세객은 상앙(商鞅), 소진(蘇秦), 장의(張儀)를 들

處, 王者與友處, 霸者與臣處, 亡國與役處)”고 하면서 자신을 먼저 중용하라고 권하는 배짱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 23) 사군자는 제나라 맹상군(孟嘗君), 초나라 춘신군(春申君), 조나라 평원군(平原君), 위나라 신훈군(信陵君)을 말한다.
- 24) 책사는 중국 고대지식인의 현실적 모습을 정확히 보여준다.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士爲知己者用)’는 지기론(知己論)과 ‘보상이 많다면 죽음도 기꺼이 감수하겠다(報君黃金台上意)’는 인생관은 고대 지식인의 ‘권력의존성 인격’과 ‘기능주의 인격’을 보여준다. 이는 유가에서 이상으로 내세운 ‘군자인격’과 거리가 아주 먼 책사의 가치관과 현실적 삶의 조건을 보여준다.

수 있는데, 이들이 법가나 합종가를 신봉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유가가 얼마나 현실적 경쟁력이 없었는가를 알 수 있다. 즉 맹자는 이름은 높고 제후들의 후한 대접은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맹자의 사상을 채용하지는 않았던 것만 봐도 정치방략으로서의 유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현자를 모신다는 ‘초현’은 명망가를 인재를 중용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선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 당시는 국가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명사 한명에게 높은 관직을 줌으로써 다른 인재를 유인하는 ‘초현’ 방식은 이 시기에 널리 활용되는 심리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B. 통일왕조—과거제 이전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진나라의 중국통일과 중앙집권제의 확립은 이후 이천여 년 동안 중국정치의 기본 틀이 되었다. 황제 중심의 강력한 단일정부와 군현제는 청말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원칙이자 중국정치를 규정하는 핵심이었다. 강력한 황제의 권한이 인치(人治)를 제도화한 것이라면, 유가의 도덕정치는 인치를 정당화한 이데올로기였다. 이로써 중국은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인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전국시대에 이미 군주가 관리를 파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관제도가 생겨난 이래, 진나라에서는 지방관의 임면을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함으로써 직업 관료제도의 초석을 단단히 했다. 진나라의 또 다른 정치사적 공헌은 귀족특권을 없앴다는 것이다. 진나라는 통일 이전부터 귀족을 강력하게 억제해 새로운 영입인재들이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개방했는데, 이것이 결국 변방의 후진국이 통일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나라의 강력한 사상통제와 가혹한 형벌주의는 인문주의 문화의 재앙이었다. 문자와 도량형 심지어 마차 수레의 폭까지 통일한 것은 경제유통과 지식소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분서갱유는 수 백년을 거쳐 형성된 인문정신과 지식인의 사회적 역량을 한 순간에 매장시켜

버렸다. 특히 ‘관리를 스승으로 삼으라(以吏爲師)’는 정책은 법가를 유일한 사상으로 결정한 전제주의 문화정책이자, 지식인을 통치의 도구로 전략시키고 지식을 단순한 기술로 한정시킨 극단적 조치였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런 진나라의 지식인 탄압으로 형성된 지식인 굴종현상은 역대 왕조의 변함없는 권력-지식인 관계를 규정하는 원형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정치제도는 계승했으나, 정치사상에서는 ‘법가의 유허화’를 추진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문관 우대정책 덕분에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진시황이 무력으로 통일을 하였지만 무관을 중용하지 않은 것처럼, 한고조 유방도 무관보다 문관을 더 중용했다.<sup>25)</sup> 유방(劉邦)이 개국공신의 공훈을 논할 때 내치를 담당했던 소하(蕭何)를 장군인 조참(曹參)보다 높은 자리를 준 것은 매우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한나라는 지식인을 활용하여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중국문화의 원형을 형성할 수 있었다. 지금도 중국인을 한족(漢族)이라고 하는 것도 한나라가 끼친 영향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는 교육과 사상 및 세력연합 측면에서도 지식인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즉 귀족출신이 아닌 지식인들은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에 귀족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집권화를 강력히 지지했는데, 이는 황제권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앙집권화는 지식인의 관료적 기능을 가속화시켰다. 왜냐하면, 통일된 국가에서는 더 이상 전란시기의 책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능한 관리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보다는 인품이 뛰어난 명사가 더욱 중용되었는데, 태평시대에는 관료의 능력보다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품행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한편, 권력주체 간의 관계를 보면, 진나라와 한나라를 거치면서 권력(勢)

25) 무뢰배 출신인 유방은 정권을 잡고도 문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 그러나 빈객(賓客)으로 활동하던 육가(陸賈)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馬上得天下, 不能馬上治之)고 충고하자, 문인들을 중시했다. 유방의 정책변화는 한나라 초기 정치집단의 사상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문관중심의 제도가 정비될 수 있었다.

과 지식인(道)의 관계는 보다 분명해졌다. 즉 지식인이 더 이상 전국시대처럼 권력자를 훈계하거나 협사(俠士)의 기개를 보일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한무제 때 유가를 유일한 학문과 사상의 기준으로 설정한 이후, 지식인은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지만 더 이상 사상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관직에 오른 지식인은 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가의 ‘도’를 내세워 ‘세’를 견제하려는 태도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 결과 이천여 년을 오직 유가의 경전을 외우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낸 지식인은 사회변혁의 창조자가 기능을 영원히 상실하고 말았다.

고대지식인이 관료가 되는 길을 보면, 역대 왕조의 관료선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추천제인 찰거정벽(察舉征辟)과 선발제인 과거제가 그것이다. ‘찰거’는 아래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제도이고, ‘정벽’은 위로부터 관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대는 이 ‘찰거정벽’을 체계화 했는데, 특이한 것은 일종의 ‘관직 인턴제’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즉 추천을 받은 인이라도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 임명해, 임의추천의 병폐를 예방하려 했다. 또한 한대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태학(太學)을 세웠지만, 인재의 수준이나 인원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는 ‘찰거제’를 통해 사회에서 충원하였는데, 주로 지방에서 천거한 현량(賢良)과 효렴(孝廉)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청의(淸議)라는 이름의 지역사회의 여론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를 보면, 한나라의 인재 등용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sup>26)</sup> 이런 인사시스템은 지식인과 정치권력의 관계가 가장 합리적인 시대였고, 문화역량이 뛰어난 시대에나 가능했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 이후에 등장한 위진남북조 시대는 대혼란과 부패가 만연한 시기이다. 당시는 중앙권력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귀족은 중앙권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

26) 이를 반영하는 당시의 속담으로 “서도(西都)에는 단지 군국(郡國)의 천거를 따랐지 시험을 치르는 일은 없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품행과 행실을 중시했던 당시의 풍속을 알 수 있다.

지히는 전략을 택했다. 이는 중앙권력이 바뀌어도 문벌은 계속 살아남아야 한다는 방어적인 전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약한 중앙정부에 압력을 행사 하면서 일정한 타협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보신책이기도 했다. 이런 보신주의는 정치권력보다 경제력을 장악하는데 집중하게 함으로써<sup>27)</sup>, 중국 역사에서 가장 심한 귀족의 토지점병과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또한 문벌 간의 정략결혼을 통해 중앙권력에 대항하는 지방권력 연합을 형성한 것도 나라의 흥망이 빈번한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당시의 사대부 혹은 지식인은 황제권력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와 정치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귀족정치의 영향을 배경으로 나타난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는 위(魏)나라 때 시행된 이래 과거제도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된 관원임명과 등급제도이다. 이는 한나라에서 시행한 향거이선(鄉舉里選)<sup>28)</sup> 정신을 계승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물의 언행에 따라 아홉 등급을 정하여 등용의 표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한 구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관리 임용방식은 지역 향당사회(鄉黨社會)의 평가를 국가가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지방 유지와 국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sup>29)</sup>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지식인은 황제와 일반 백성의 중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청의를 바탕으로 한 지식인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권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독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7) 인제 바뀔지 모르는 중앙정부에 직접 참여해 잠시 권력을 누리다가도, 나라가 망하면 한순간에 귀족이 멸문을 당하는 위험은 하지 않겠다는 보신심리가 오히려 지방귀족의 지위를 견고히 하는 아이러니를 불러왔다.

28) 한대(漢代)에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로, 현량방정(賢良方正), 효렴(孝廉), 수재(秀才)의 3종류가 있었다. 현량방정은 천자(天子)가 당시의 시무(時務)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정무(政務)의 협력자를 발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학(才學)을 중시하였으며, 효렴은 유가사상의 본이 되는 효를 숭상한다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행의(行義)를 중시했다. 수·당 이후 과거제도가 발달하면서 없어지게 되었다.

29) 구품중정제는 군(郡)마다 현지 출신의 중정(中正)이란 관리를 선정하여 그가 군내 관리에 대한 재능·덕행을 조사시켜 이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향품(鄉品)이라 했다. 그러면 정부는 이 향품에 대응하기 위해 관료의 등급을 역시 1품에서 9품까지 구분하여 임명했는데, 이를 관품(官品)이라 했다.

그러나 원래 이제도의 시행 목적이 가문에 구애됨이 없이 개인의 재능과 덕망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자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귀족사회가 강화된 당시의 조류를 반영하여 귀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견고한 기동역할을 했다. “상품(上品)에는 비루한 가문이 없고 하품(下品)에는 세족이 없다”는 이 풍자는 지역사회의 귀족과 문벌에 의해 중정(中正)의 평가가 좌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지방 호족세력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귀족계급이 더욱 확장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지식인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유학은 실천하지 않았지만, 황제권력에 비루하게 아첨하지도 않는 호걸을 숭상하는 기풍을 가졌다. 백성의 입장에서 당시 지식인이 사회적 역할을 포기한 것은 불행이었지만, 지식인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보면, 개인적 행위는 한나라 때보다 더 자유롭고 기백이 있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sup>30)</sup> 이는 통일국가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당시의 권력-지식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춘추전국시대는 국가의 존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력자가 지식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통일국가를 이룩한 진나라와 한대(漢代)의 지식인은 황제권력을 위한 통치조력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다시 대혼란기인 남북조시대에는 귀족화한 지식인을 중심으로 황제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권력-지식인의 관계는 지식인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춘추전국시대와 과거제도 실시 이후 황제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명청(明清)시대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C. 과거제 이후의 출사와 정치권력 관계

당나라에서는 과거제와 더불어 다양한 인재선발제도가 혼용되었다. 점차

30) 지식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회화와 서예 등 예술에 침잠하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북방 이민족의 문화가 도입되면서 문화간 융합과 회통으로 문화다양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불교문화가 한족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한 생활방식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시험에 의한 진사과를 중심으로 과거제가 정비되었지만, 오직 시문(詩文)을 외우는 능력이 관료선발의 기준이 되면서 관료의 행정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 더구나 당나라의 과거시험은 고사장에서 답안을 써내는 능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이전에 대신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실력을 증명하는 ‘첩(牒)’을 통해 사전에 윤허를 받는 불완전한 제도였기 때문에 인재의 선발기능이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았다. 당대의 최고 시인인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도 대신들과의 인맥이 좋지 못해 과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당나라의 과거제도는 여전히 귀족 중심의 관료선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겠다.

과거제의 시행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와 정치의 관계를 단순한 이익-녹봉의 관계로 축소했고 둘째, 독서를 단순한 이익과 녹봉의 도구로 간주하게 하였으며 셋째, 지방에서 관리를 천거하던 상향식 제도가 위로부터 임명하는 하향식으로 바뀌었으며 넷째, 황제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권력을 독식하며 관료를 경시하는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sup>31)</sup> 이로써 사대부가 권력에 비루해지고 지식인-권력관계가 심한 비대칭으로 고착화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이전 귀족들의 권력전횡을 방지하고, 능력본위의 선발제도를 완성했으며, 관료의 인문적 소양을 최고로 높였다는 장점은 인정해야만 한다. 다만, 과거제가 문장능력만 중시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지 못했으며, 명분론에 사로잡힌 관료 때문에 사회변화를 추동하지 못한 점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유문(儒門)이 희미해지고 지식인의 기백도 사라져 시시비비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였다. 송대는 과거제도가 완비되면서 응시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것은 문벌세력이 약해지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너도나도 과거에 응시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결과 오히려 사대부의 기개는 사라지고 오직 녹봉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서 황동발(黃東發)은 송나라의

31) 쉬지린 편저, 앞의 책, p.143.

위기는 사대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시비를 말하지 않는 무치(無恥)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sup>32)</sup> 과거를 통한 인재선발이 제도화됨으로써, 권력과 지식인의 관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었다. 즉 사대부는 ‘도’로서 ‘세’를 견제하기 전에, 관료로서 황제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선했다. 그 결과 지식인-권력의 관계는 ‘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인의 기개와 위상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존재가 의존적으로 변한 이후, 황제를 대하는 관료의 태도는 각 개인의 의지와 성정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군주와 언쟁도 마다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쟁신(諍臣)’이 그 첫 번째 유형이다. 이들은 때로는 주군의 노여움을 사 위협에 처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실은 명군(明君)을 만나 부와 명예를 유지한 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다음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능신(能臣)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경영과 가문의 영광을 동시에 이룬 성공한 케이스이다. 하지만 주종관계가 분명한 봉건사회에서 이런 능력을 보이면서도 주군의 질투를 받지 않는 신하는 매우 드물 수밖에 없었다.<sup>34)</sup> 세 번째는 군주의 폭정과 무능을 역사에 드러내 보이기는 했지만, 사회개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문도 풍비박산이 되는 충신(忠信) 유형이 있다. 이들의 기개와 절의는 훌륭하지만, 전략적 판단과 실무능력 부족으로 난국을 타개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친 명분론에 치우쳐, 청사에 이름은 남겼지만 정치적 능력은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유형으로 간신(奸臣)이 바로 그들이다. 권력을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보고 주군을 기망(欺罔)해서 권력을 농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렇게 과거제라는 안정적인 선발제도가 정착되자 지식인은 권력에 대해

32) 쉬지린 편저, 앞의 책, p.147.

33) 당태종 때 유명한 쟁신은 위징(魏徵)이었는데, 그의 직언을 서슴지 않는 그의 성정도 훌륭하지만, 당태종 같은 포용력 있는 군주를 만났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미담을 남길 수 있었다.

34) 북송 때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이룬 범중엄(范仲淹)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내우외환과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순하고 기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권력-지식인 관계는 비판의지는 현저히 감소하고 기술관료 혹은 권력의 통치도구 이상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가 확연했다. 그래서 ‘간언’과 ‘상소’는 지식인의 책무라고 여겼던 ‘도통’ 정신은 사라지고, 황제권력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한편, 명(明)대는 봉건적 중앙집권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라고 평가 받는다. 황제와 관료의 권력분점에서 재상의 권한범위 설정은 항상 가장 첨예한 문제였다. 그런데 명은 재상(宰相)제도를 폐지하고 내각을 설립하여 황제가 직접 행정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도록 했다.<sup>35)</sup> 이러한 황제 중심의 정치는 사대부관료의 역할을 축소시켜, 측근과 환관의 전횡이 심해졌다.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은 명나라는 환관의 발호가 가장 심각했고, 무능한 황제가 가장 많은 왕조였다. 이는 권력분배의 제도화가 낮은 왕조에서 나타나는 권력독점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수민족으로 다수를 다스려야 했던 청나라가 팔기(八旗)제도만 제외하고 명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을 보면, 명은 중앙집권을 위한 각종제도가 최고로 완성된 형태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소수의 만족(滿族)으로 그보다 100배나 많은 한족으로 다스리기 위한 청나라의 정책은 한족의 자긍심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찍 동화한 한족 지식인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높은 관직을 제수하면서 문화수준이 높은 한족을 존중한다는 심리전도 빼놓지 않았다. 실제로 청대는 다른 왕조보다도 문인을 더 중시하고 지식인을 우대했다. 이런 정책은 한족 지식인들의 행동 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어 결국 대부분이 청나라 문화정책에 동화되도록 만들었다.

명나라는 초기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과거제도도 정비했지만, 팔고문(八股文)을 시험에 도입함으로써 인재의 능력을 퇴화시키고, ‘분서(焚

35) 白綱, 『中國政治制度史』 下卷, 天津人民出版社, p.785.

書)’에 맞먹을 정도의 사상적 통제를 시행했다. 성리학이 주류사회를 장악하자 과거시험도 극히 명분론에 빠져, 사서오경에 대해서 주희의 해석을 벗어난 자신의 해석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한 과거시험은 무능하고 허위에 찬 ‘위선 군자’만 대량으로 양산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지식인의 인격도 이전보다 훨씬 타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명 황제는 주기적으로 문자옥(文字獄)을 발동해 지식인을 위협하고 정신적으로 위축시켰다. 청대는 문자옥으로 한족 지식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태평성세의 명군이라는 옹정(雍正)과 건륭(乾隆)이 약 90여 차례나 문자옥을 일으킨 것은 지식인 통제라는 목적을 넘어 가학적 심리의 발동이라고 할 정도였다.

변말까지 당하면서 만주인 지배에 대한 굴종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살아야했던 한 한인 지식인은 빈번하게 발동하는 문자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고증학(考證學)에 천착했다. 이들은 한 나라 시대의 고증에 집중하여 한족의 영화에 대한 동경을 드러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은 송대 유학(宋儒)에 근거해서 경전을 해석한다는 법령까지 만들었지만, 당시 훈고학자들은 고증을 통해 송나라를 반대하고 한나라를 존중하는 ‘반송존한(反宋尊漢)’을 통해 한대의 유가를 중시하면서 공자를 신격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다.<sup>36)</sup> 이렇게 청대의 훈고학 발달은 권력과 지식인의 학문영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훈고학자들이 고증학을 통해 사상탄압을 피하고 간접적으로 청의 지배를 반대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참여를 존재가치로 삼는 유가지식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행동이었다. 이들이 치국평천하를 꿈꾸거나 선정을 통해 유가의 정신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

#### D. 아편전쟁 이후 지식인의 변신

아편전쟁 이후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더욱 키운 신사(紳士)계층은 새로운 지식권력으로 등장했다. 군벌로 성장한 지방의 향신은 주변의 지식인들을 직접 막료로 고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관료임명제가 퇴색되어 갔다. 그 결과 향신(鄉紳)들이 창설한 단련(團練)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관료가 신사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sup>37)</sup> 청말에 이르러서는 관료보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사로 활동하는 것이 더 전도가 유망한 사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지방관은 신사의 동의 없이는 지방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중앙집권적 관료임명 방식이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원과 학당을 통해 배출된 지식인들도 과거시험에만 연연하지 않고, 상업과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회가 그만큼 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제의 폐지는 1천 3백여 년 유지된 중국 관료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과거제의 폐지는 사대부계급을 철저히 전복하고, 그들의 역할도 근대 지식인으로 전환을 강요했다. 이로써 사대부는 다양한 활로를 찾아 사회 각 분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를 먼저 사회적 의미로 보면, 이는 농촌지식인인 ‘사’의 몰락을 의미했고, 지배계층인 ‘사’와 농민의 유기적인 연계 고리가 단절된 것이었다. 향촌 지도층의 몰락은 도시와 농촌을 문화적으로 급속히 재편했다. 몰락한 농촌출신 지식인은 도시로 나가 생계를 구하는 현상이 보편화 되었다. 그런데 도시생활은 농촌과 달리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절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식인과 대중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감도 현저하게 퇴색했다. 결국 과거제의 폐지는 농촌과 도시의 문화적 분리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문화적 장벽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

래했다.

다음으로 과거제 폐지의 정치적 의미를 보면, 한 사람의 지식인이 관료와 문인의 역할을 했던 오랜 전통이 깨지고 관료와 문인의 구분이 확실해졌다. 이것은 관료가 되지 못한 지식인의 주변화를 의미한 것이기도 했고, 지식인의 분화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갑작스런 과거제의 폐지는 인재충원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인재 양성기관으로 각종 학당을 설립하기는 했지만,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신규채용 관리는 수준이 미달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더 많은 지식인은 관리등용의 기회를 상실하고 대부분 주변인으로 전락해 갔다. 이렇게 관직을 찾지 못한 주변적 지식인은 군벌이나 정치실력자에게 의탁해 신분상승을 노렸기 때문에 과거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들의 정치참여 열기는 매우 높았다. 아울러 신분질서가 약화되면서 영향력을 강화한 신흥 상인계층은 그 동안의 신분제에 대한 울분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강렬한 정치참여 세력으로 변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나라는 무너져가는 형국이었지만, 지식인과 상업자본의 정치참여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과거제 폐지 이후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하락했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정치적 지배 권력을 상실하고 어떻게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급격한 사회해체와 거기에 적응하는 지식인의 역할전환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서당을 대신한 학교를 수립하거나, 현대적인 언론매체 창설, 정치결사 운동을 통해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문화권력’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오랫동안 중국의 기층 조직을 다스렸던 신사(紳士)는 근대적인 지식인으로 변신하면서 청의(淸議) 대신 공공언론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사대부의 문벌은 지식인의 학교와 학벌로 대체되었다.<sup>38)</sup> 이로부터 관료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지식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결국 신해혁명과 오사운동의 핵심

38) 쉬지린 편저, 앞의 책, p.8.

이 되고 멀리는 공산당의 지도자로 성장하면서 현대중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 IV. 권력에 대한 전통지식인 행동 평가

고대 중국정치와 지식인의 관계는 ‘현인정치(賢人政治)’의 이상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비록 이상에 불과할 뿐이지만 모든 제왕과 사대부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였다. ‘현인정치’의 특징은 명군은 현명한 지식인을 스승으로 삼는다(師友)는 권력-지식인 관계의 이상모델로 나타났고, 지식인 가운데 우수한 자가 벼슬을 한다는 지성주의(智性主義) 정치관이 매우 농후하게 배어 있다. 이런 주지주의(主智主義) 경향은 유가에서 가장 두드러져, 모든 사회구성원을 ‘예악(禮樂)’을 통해 교화하려고 있다.

그래서 유가학파는 정교합일(政教合一)을 내세우면서도 교(教)는 곧 도(道)라고 주장함으로써 도덕과 명분으로 현실권력을 규제하려고 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식인과 현실권력의 충돌을 야기했다. 권력자는 ‘도’가 ‘세’보다 존엄하다(道尊于勢)는 주장을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권력자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주군은 존엄하고 신하는 낮다(尊君卑臣)를 명제를 강요했다. 지식인과 권력의 힘겨루기는 전국시대에 일시적으로 지식인의 위세가 강했을 뿐, 진시황의 통일과 더불어 영원히 권력의 도구로 내려앉은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굴종은 중국 지식인의 비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복음이기도 했다. 권력에 복종함으로써 지식-권력의 동맹을 형성해 백성 위에 제도적으로 군림하는 신분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중국지식인의 최대 임무는 바로 인문정신의 대중화였다. 즉 ‘도’로써 사회를 교화하고 도덕정치를 행함으로써 백성을 구제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숭고해 보이는 정신에 바로 지식인의 비극이 잉태되어 있었다. 즉 고대 중국지식인은 정치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인생의 과도한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에 의존하게 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지식인 집단은 독립적인 사회집단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정신적인 예속과 자기검열로 인해 학문적 독립도 확보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지식인과 권력이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서양과 아주 다른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식인이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분화를 시작한 춘추시대에는 지식인의 자부심과 사회적 인정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었다. 격렬한 사회분화와 신분질서 재편 속에서 독립된 신분을 확보한 지식인이 열정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어서 전국시대는 제후국들이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쟁을 하면서 더욱 실력본위 사회로 진화하자, 권력이 지식인에게 몸을 낮추는 시기가 도래했다. 제자백가는 빈한한 출신이 많았지만, 지사의 풍모와 유희(遊俠)의 기개도 있어 가히 지식인의 전성시대를 풍미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의 학사(學士), 책사(策士), 술사(術士), 식객(食客) 등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진 유사(遊士)는 이후 중국지식인의 행동유형을 규정짓는 원형을 형성했다. 즉 권력에 당당한 도학정신과 동시에 권력에 기생하고 굴종을 감내하는 특성이 깊게 각인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의 사상통제 이전에 이미 ‘군자인격’ 보다 ‘세속형 인격’의 지식인이 더 보편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후 관학의 성립은 지식인이 주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능적 역할로 전락되었고, 과거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황제권력 강화를 위해 복무하는 존재 이상은 되지 못했다. 이런 특성은 황제가 문치를 중시하는지 여부를 떠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나라처럼 무력을 앞세운 통치시대에는 지식인은 걸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대우를 받기조차 했을 뿐이다. 문인을 존중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한 명나라는 팔고문으로 사상통제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옥을 주기적으로 발동해 지식인의 머리 속까지 검열하려 했다. 청나라는 문자옥을 통해 지식인을 질식시킬 정도로까지 압박함으로써, 고증학 이외는 다른 학문조차도 연구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했다. 결국 지식인의 위상은 정치권력의 의지와 통치자의 권력 안정 정도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는 피동적인 존재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권력-지식인의 기본 구도에서도 각 시대별로 지식인 풍모는 다르게 발현되었다. 권모와 술수가 난무한 가운데서도 자존과 기백을 견지했던 춘추 전국대의 지식인은 특수한 역사 배경에서 형성된 우담바라와 같았다. 전국시대 이래 형성된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개인적인 연마를 통해 지식계 층이 된 빈한한 출신의 한나라 지식인들은 나약하기는 했지만 소박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경세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수·당대에는 권문세가와 고승들이 지식계를 대표했는데, 특히 선승(禪僧)들은 지식인다운 풍모와 권력에 대한 의연한 모습을 겸비하고 있었다. 당대의 귀족들은 웅대한 스케일로 활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귀족문벌이 해체되고 평민 출신의 지식인이 주류를 형성한 송대는 경세(經世)가로서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지나친 엄숙함으로 도학선생(道學先生)이라는 후학의 평가를 받았다. 중앙집권제와 과거제가 가장 잘 정비된 명대는 오히려 지식인의 굴종이 두드러지고 위선적인 군자의 모습이 많이 노출된 시대이다. 청대는 문화정책과 사상탄압이라는 상반된 권력집단의 횡포 속에서 지식인의 기개와 사명의식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중국역사에서 지식인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특히 중앙집권이 강화될 때 지식인은 권력의 기능적 수단 역할에 한정되었으나, 여러 나라로 분할 된 시기에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결국 지식인의 사회적 위상은 다양성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권력의 시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지식인이 통치자에 대한 견제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위계질서를 옹호하는 유교의 교리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 한계가 그 첫 번째이고, 권력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권력에 의존하는 지식인만을 양산하는 역설이 두 번째이며, 봉건제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지식인이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쉬지린 편저, 강태권 등 역, 『20세기 중국의 지식인을 말하다-1』, 도서출판 길  
안평친 저, 김기협 역, 『공자평전』, 돌베개, 2010.
- 白鋼, 『中國政治制度史』上·下卷, 天津人民出版社.
- 陳啓智 主編, 『儒家傳統與人權民主思想』, 齊魯書社, 2004.
- 李金鈞 著, 『文人論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 李世愉 著, 『清代科舉制度考辯』, 沈陽出版社, 2006.
- 劉東 編, 『儒教與道教』, 江蘇人民出版社, 2003.
- 孫立群 著, 『中國古代的士人生活』, 商務印書館, 2004.
- 孫適民·蔣玉蘭, 『中國古代士文化與知識分子現代化』, 湖南人民出版社.
- 翁禮華 著, 『求官食祿』, 浙江古籍出版社, 2003.
- 蕭功秦 著, 『儒家文化的困境』,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 楊陽 著, 『文化秩序與政治秩序』,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 易中天 著, 『帝國的惆悵』, 文匯出版社, 2006.
- 余明灼 等著, 『儒學與近代以來中國政治』, 齊魯書社, 2004.
- 余英時, “中國知識分子的周邊花”.
- 余英時 著, 『中國思想傳統的現代詮釋』, 江蘇人民出版社, 2003.
- 趙衛東 著, 『分判與融通』, 齊魯書社, 2006.

(논문투고일: 2012. 07. 08)

(심사의뢰일: 2012. 07. 22)

(게재확정일: 2012. 08. 15)